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72호 [루체 제23124호] 주체99(2010)년 6월 21일 (월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2기계3차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에 참가한 군부대들의 군인가족예술소조 공연을 관람하신 소식을 15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이따르-파스트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인민군 군인가족들이 준비한 예술소조 공연을

관람하시었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무대에 오른 모든 종무자들이 중요한 사회정치적문제들을 사상예술적으로 깊이있게 해명한 혁명교양, 계급교양의 훌륭한 교재라고 하시며 최상급의 공연을 진행한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을 거듭 축하하시는데 대하여 전하

소식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

여러 나라 인사들이 높이 칭송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6돐에 즈음하여 그이께 드린 축전들에서 여러 나라 인사들은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의 영광을 축하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면서 조선로동당은 영원히 승리를 쫓아갈 것이라고 확신을 표명하였다.

수 없다. 김정일동지의 로속하고 세련된 령도를 받는 조선로동당은 사회주의를 지향하여 투쟁하는 모든 혁명적 당들에게 있어서 희망의 등대라고 있다.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이 되는 올해를 혁명적대변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해 힘차게 투쟁하고 있다.

조선인민에게 더욱 커다란 성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로씨야연방 올라지보스토크시 의회 의원 아. 멘. 들가제브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로씨야연방 및 통일당 위원장 싸리 우말라파마는 다음과 같이 강조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6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 46년간 당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시었다.

우리는 이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당과 군대, 인민이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세계 사회주의운동의 기수로 건설하는데

거대한 공헌을 하시었다. [조선중앙통신]

우리는 앞으로도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할 것이다. 주체사상연구 메리코전국조직위원회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세계 사회주의운동의 기수로 건설하는데

거대한 공헌을 하시었다. [조선중앙통신]

우리는 앞으로도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할 것이다. 주체사상연구 메리코전국조직위원회

평양

세계자주화위업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김정일각하께

존경하는 각하 오늘 우리들은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의 주최로 진행된 《세계자주화와 평화실현, 《세계화》 반대투쟁에서 유럽의 역할》에 관한 주체사상토론회를 마치고 각하께 참가이 편지를 올리는 영광을 지니게 됩니다.

이런 토론회는 세계자주화위업을 촉진시키는 데서 유럽이 노는 역할과 유럽지역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다스리는데 현명하고 그것을 확고히 실현해나갈 의지가 표명된 의의있는 회합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결같이 주체사상은 세계의 자주화와 평화실현을 위한 진보적인류의 앞길을 밝혀주는 자주시대의 가장 유일하고 정당한 리념으로 되고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각하께서 새로운 역사적조건에 맞게 발전공화국시작 선군사상은 자주위업수행의 빛나는 승리를 담보하는 보검이며 우리가 높이 추켜들고나가야 할 지침이라는 데 대하여 견해

를 표명하였습니다. 각하께서는 수많은 고전적작품들을 발표하시어 사회주의승리의 필연성을 과학적으로 논증하시고 그 중국적승리를 위한 방도를 밝혀주시

었음은 물론이러나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구상을 펼쳐주시고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그를 실현해나

본사기자

주체의 가치밑에 자주와 평화의 세계를 건설하자

유럽지역 주체사상토론회 진행

【평양 6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 《세계자주화와 평화실현, 《세계화》 반대투쟁에서 유럽의 역할》에 관한 유럽지역 주체사상토론회가 5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진행되었다. 토론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작품들과 불멸의 업적을 소개하는 도서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토론회에는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리사장, 서기장, 리사들, 유럽지역의 주체사상연구조직 책임자들, 이탈리아의 사회계인사들 그리고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과 사무국장들이 참가하였다. 이 나라 주제 우리 나라 특별전 전대사와 조선사회과학회대표단이 여기에 초대되었다.

토론회에서는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리사장이 참가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인간의 운명개척의 과학적인 길을 밝혀주는 인간해방사상이며 현 시기 세계자주화위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가장 정확한 해답을 주는 위력한 무기이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학설, 인민주주위업의 지도적지침이다.

리베르티는 엄격한 정세와 준엄한 시련속에서도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시였으며 특히 최근년간 계속되는 세계적위기의 엄살책들을 짓부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빛내시였다. 선군사상, 선군정치로 하여 《세계화》의 소용돌이속에서도 자기 식의 독특한 길을 개척하고있다. 자주,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대개 나라들은 력사적조건과 특성, 문화전통에 맞게 주체사상, 선군사상보급활동을 더욱 심화시키고 여기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여야 한다. 세계의 자주화와 평화를 위한 투쟁은 진보적인민들의 지향과 념원, 력사발전의 흐름을 반영하고있는 정당한 필수의 위업이다. 토론회에서는 축하연설들이 있었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 비슈

6면으로 계속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당건설업적 만대에 빛내리

당창건기념탑 준공후 지난 15년간 460여만명 참관

인민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당창건기념탑을 끊임없이 찾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6돐에 즈음하여 기념탑을 찾는 사람물의 수는 하루 1000여명에 달하고있다. 당창건기념탑이 준공된 후 지난 15년간 460여만명의 인민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 그리고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이 이곳을 참관하였다.

당창건기념탑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은 높은 권위와 불패의 위력을 지닌 혁명적당으로서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확신있게 령도하여나가고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깊이 새겨안았다. 기념탑을 돌아보며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당을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인민대중에게 굳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위업은 필승불패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전체 참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업적을 우리 혁명의 영원한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부강번영할 조국의 미래를 앞당기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갈 결의를 가다듬고있다. [조선중앙통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천재중의 천재입니다. 그는 모든 분야에서 능률한 인력역사가 빛나는 위인들중의 위인입니다.》



위대한 당을 따라 선군혁명 전만리길을 끝까지 가고 가리라

본사기자 강정민 찍음

당의 령도를 충실하게 받들도록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천재중의 천재입니다. 그는 모든 분야에서 능률한 인력역사가 빛나는 위인들중의 위인입니다.》

인민적공포를 지니시고 우리 당과 혁명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끌어 오신 조선로동당의 대표자이시라는데 대하여 알기 어려운 해설해주면서 생산공정현 대화공사를 다그쳐 끝냄으로써 수도시민들에게 장군님의 사랑이 더 빨리, 더 뜨겁게 가닿게 하고자 호소하였다. 이런 교양사업은 생산공정현 현대화하기 위한 투쟁이 높은 수준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평양밀가루공공장에서 진행되었다.

연안군, 배천군, 안악군, 선천군당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에 선동원들을 적극 인입하였다. 김계기 회장이 모전에서 열람한 선동원들이 주체의 당건설사에 쌓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한 시와 노래를 가지고 진행된 교양사업은 당원들과 농장원들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한없는 민족적근지와 자부심으로 끓어 넘치게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본사기자 손영희

실천으로 당을 받드는 대고조시대의 참된 일군

은 하 지 도 국 자 재 상 사 사장 최 춘 성 동 무

우리는 기업소부터 먼저 돌아오기로 하였다. 우리가 만나려고 했던 최춘성동무는 이른 새벽에 물동수송을 위하여 현지로 떠났던 것이다.

갑나루 설레이는 정원과 아늑하게 꾸러진 휴식터, 평사와 비둘기 울며 산뜻하면서도 후모있게 들어앉은 창고들과 유풍방까지, 건물마다 정성이 넘쳐나는 창고들까지...
 『혁명 《정일봉의 아침》이 첫눈에 안겨오는 일러의 아름다움보다도 훨씬 기쁘고 풍만한 정서와 한껏 흘러넘치고 있었다.』
 『당정책을 결사판정하는 나날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감사를 여러차례 받아안았으며 해마다 달겨들던 인민경제계획을 넘쳐수행하여 나라에 큰 리익을 준 《26호보범기대예상》을 성취한 3중3대혁명훈은 기와조도국 자재상사,』
 『이곳 종업원들의 끝없는 자랑에서 우리는 실력과 실적으로 당을 받드는 한 일군의 불같은 헌신을 안아보게 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에게는 말 잘하는 일군보다도 실천력이 강한 일군이 필요합니다. 실천으로 당을 받드는 사람이 진짜 충신입니다.』
 『자재상사의 책임일군으로 배치받고 일터로 들어서는 최춘성동무의 가슴은 높여졌다.』
 『어버이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보았던 조선인민군 사관장대회장에서 목청껏 터져던 그날의 만세소리가 아직도 귀가에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나라의 일군이 되려고 대학에 붙러준 당의 은성애목이 딱 메어 눈물로 군부지락을 적시던 첫 동료날도 떠올랐다. 경제일군의 자질과 품모를 하나하나 갖춰준 더 높이 나래타라고 낫추는 길로 떠날이던 당의 사랑이 눈물겹게 되새겨졌다. 평범한 군관의 아들인

자기를 경제일군으로 품들어 키워주고 내세워준 당의 손길은 언제나 그의 곁을 곁을 보살펴주고 이끌어주고 있었다.』
 『30대의 젊은 나이에 한 단위 책임일군이 되어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느라니 받아안은 당의 믿음에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
 『(당의 이 한량없는 믿음에 내 무엇으로 다 보답하랴!...)』
 『그날 그는 날이 밝도록 잠들지 못했다.』
 『대인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자재공급사업을 잘하는 것은 생산을 정상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침을 십장에 새기며 그는 사업수첩에 또박또박 적어놓았다. 그것은 앞으로 그가 해야 할 일들이었다.』
 『전후 어려운 시기 우리 인민이 당과 수령을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웨치며 위대한 천리마시대를 열어놓는 것처럼 우리도 수령실사용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시대를 빛내야 한다. 이것이 새 일터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최춘성동무가 품은 생각이었다.』
 『신념의 한길, 국가의 한길에서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할 각오를 안고 기업소종업원들은 분발하여나섰다.』
 『종업원들의 양양된 정신력에 큰 힘을 얻은 그는 수만의 물동수를 처리하는 바쁜 속에서도 제품창고와 차고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현존능력을 노리는 가공공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르는 막대한 량의 자재보급과 수송 등 기업소앞에 내서는 과업들을 원만히 제때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층 높은 모친 추위와 고생을 이겨내며 혁명적근인정신으로 시작한 연정정 수천명의 제

물창고와 차고건설을 완공하던 날 그의 머리속에서는 또 다른 설계가 무르익고있었다. 그것은 배수입(능력)의 새로운 연유창고건설이었다.』
 『조국이 어려운 길을 걸을 때 남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싶어하는 그의 일욕심은 참으로 끝이 없는 것이었다.』
 『《그는 정말 주도세밀하고 전개력있는 일군입니다.》』
 『차수리거지에서 우리와 만난 광장 리안일동무는 오늘도 기업소종업원들이 잊지 못해 추억하는 《20일건설창고》 이야기를 즐겁게 들려주었다.』
 『생산이 활성화될수록 더욱 긴박하게 제기되는 것은 연유물제였다. 공장들에서 생산을 중단하지 않고 힘있게 내밀수 있게 하자면 결정적으로 수백배능력의 연유창고를 더 건설하여야 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은 자재뿐만이 아니었다.』
 『로력도 긴장한 이때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건설할 것인가. 이런 의문으로 숙우구를 해보며 최춘성동무의 뒤를 따르던 일군들은 그가 가리키는 새 창고의 타건을 오래 깜짝 놀랐다. 그곳은 오래동안 진로로 《늘어오던》 땅에서 늘 보아오면서 도 탐내지 않았던 땅이었다.』
 『그러는 그들에게 그는 이미 그려놓은 새 창고의 설계도까지 내놓은 것이었다. 원래의 창고와 달리 면적은 같으면서도 2배의 체적을 가진 합리적이고도 현실적인 설계도안에 있는 면적만 타건에 기초하여 실리를 따진 고집이던 그의 노력이 확연히 엿보였다.』
 『그날부터 그는 새 창고를 지을 준비를 하나하나 착실하게 해나가기 시작했다. 기초도 차가바 아주 튼튼했다. 기초도 파기 전에 그가 시작했던 건물의 기둥이며 보들을 적어 양생시키는데 있었다. 와

있으며 자정수주는 물론 자동차대수리도 자체로 보장하여 해마다 국가에 큰 리득을 주게 되었다.』
 『조국이 어려운 길을 걸을 때 남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싶어하는 그의 일욕심은 참으로 끝이 없는 것이었다.』
 『《그는 정말 주도세밀하고 전개력있는 일군입니다.》』
 『차수리거지에서 우리와 만난 광장 리안일동무는 오늘도 기업소종업원들이 잊지 못해 추억하는 《20일건설창고》 이야기를 즐겁게 들려주었다.』
 『생산이 활성화될수록 더욱 긴박하게 제기되는 것은 연유물제였다. 공장들에서 생산을 중단하지 않고 힘있게 내밀수 있게 하자면 결정적으로 수백배능력의 연유창고를 더 건설하여야 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은 자재뿐만이 아니었다.』
 『로력도 긴장한 이때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건설할 것인가. 이런 의문으로 숙우구를 해보며 최춘성동무의 뒤를 따르던 일군들은 그가 가리키는 새 창고의 타건을 오래 깜짝 놀랐다. 그곳은 오래동안 진로로 《늘어오던》 땅에서 늘 보아오면서 도 탐내지 않았던 땅이었다.』
 『그러는 그들에게 그는 이미 그려놓은 새 창고의 설계도까지 내놓은 것이었다. 원래의 창고와 달리 면적은 같으면서도 2배의 체적을 가진 합리적이고도 현실적인 설계도안에 있는 면적만 타건에 기초하여 실리를 따진 고집이던 그의 노력이 확연히 엿보였다.』
 『그날부터 그는 새 창고를 지을 준비를 하나하나 착실하게 해나가기 시작했다. 기초도 차가바 아주 튼튼했다. 기초도 파기 전에 그가 시작했던 건물의 기둥이며 보들을 적어 양생시키는데 있었다. 와

이것은 포도원들이 뻗어오르기 시작하는 휴식터에서 광경 민동무가 우리에게 한 말이다.』
 『로동자들과 똑같이 웃웃을 벗어제치고 상하차작업을 한 날에도 그는 먼거리수송을 마치는 운전사들을 일일이 다 배워주고 제일 먼길을 떠나는 운전사의 곁에 나란히 앉아 운행을 함께 이어갔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을 실고 강제시민들을 찾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차를 달린 그 나날도 바로 그 곁에 비껴였다.』
 『아래단위를 도와주려면 운하지도국처럼 실지 은이 나게 도와주어야 한다고 여러차례에 걸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처하의 말씀을 안겨주시며 그의 가슴은 얼마나 격조와 행복으로 부풀었던가.』
 『합검고 어려운 때에다 최춘성동무는 늘 일군들에게서 이렇게 말하곤 했다.』
 『전후 천리마대고조시대의 참된 일군들은 지난날 사회의 회향에서 버림받은 자기를 혁명의 크고작은 모든것들에 주고 내세워준 당과 수령의 믿음과 사랑에 보답하려는 자기가 높고 정직하여 강했기 때문에 빈터우에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세우는데 한몫 단단히 할 수 있었다.』
 『우리 경제일군들도 천리마대고조시대의 일군들처럼 불굴의 정신력을 발휘하여 경제발전과 조국, 지위를 혁명적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대고조의 선두에서 전진하는 모범적인 단위가 될 수 있다.』
 『대고조의 선두에서 전진하는 모범적인 단위가!』
 『이것은 자신과 집단에 대한 높은 요구성과 사업에 대한 책임, 비대한 실천력과 함께 자기 단위, 자기 종업원들에 대한 뜨거운 애착과 사랑이 없

다면 이룩할 수 없는 목표이다.』
 『하기에 우리에게는 로동자만이 한결같이 터치던 《우리 사장 동무는 인정미가 있는 일군입니다.》라는 그 말이 무성히 들리지 않았다.』
 『찾아가기 전에 먼저 찾아와 애를 풀어주고 번뜻하게 지은 새 집들에 제대군관들부터 신참으로 입사시켰다고, 우리 당이 제대군인들을 얼마나 위애하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느꼈던 로동자 김성수동무, 이것이 어찌 그 한사람만의 감동뿐이라.』
 『인삼까지 넣어 정성껏 만든 로기품을 모든 종업원들의 생일상마다에 놓아주었다고, 토끼공이 온 집안에서 울었다는 종업원의 이야기며 생활하는 것이 있다고 기쁨에 넘쳐 말하던 젊은 로동자, 부모들을 대신하여 기업소에서 결혼식을 치러준 것만도 벌써 몇몇째라. 기업소 입원치료를 받게 되면 누구에서 면회를 제일 많이 가는 사람도 우리 사장일기라고 말하던 사람들의 평가에서 우리는 느꼈다. 아마 여기 운전사들처럼 먼거리수송에서도 불평을 모르며 무사고운행을 수많은 짐을 나르는 사람들이 드물거라고, 자기 종업원들을 전부 부모의 심정으로 돌보아주고 그들을 끝까지 책임질 줄 아는 그의 인간미가 반갑고 말하던 한 교통일군의 모습에서 우리는 느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열화와 같은 동지애를 그대로 닮으려는 한 인간의 불같은 마음, 오늘도 변함없이 병사시절의 사관장으로서 사는 참된 일군의 모습!』
 『그 마음, 그 모습으로 그는 한 제대군인청년을 어디에나 막힘없는 양어기술자로 키웠고 종업원들의 평균기술기능

급수도 훨씬 끌어올렸으며 그들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에 당라시켜 대학, 전문학교 졸업생들로 준비시켰다.』
 『오늘 많은 상하차공들의 사랑을 받고있는 이동식벨트콘베어에는 바로 그들의 지식과 노력이 깃들여있다.』
 『최고물우에서 키우는 깨끗하고 새하얀 오리들을 보며 독특한 사양법에 전문가들도 감동받은 금치 못했다. 오리사양공의 이야기, 쌀도없이 버리던 오리배설물을 태워먹고 리용하여 고기생산에 특별히 끌어올렸으며 자체로 꿀벌을 쳐서 로동자들에게 한해에 두번씩 꿀을 공급한다는 이야기, 매추리알이며 버섯, 남새며 물고기 등 모든 것이 자기들의 부업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실지 그 덕을 보게 되니 일할 맛이 있고 일터에 대한 긍지가 생긴단 로동자들의 이야기, 종업원 모두가 배우는 수들이고 예솔소조원들이는 토끼사양공의 자랑...』
 『들수록 몇몇 안되는 젊은 기간에 최춘성동무가 한 일은 셀 수 없이 많았다.』
 『당에서 이 일을 하라고 하면 그것을 손색없이 훌륭하게 해 제끼며 저 일을 하라고 하면 그것도 새 세기의 맛이 나게 수행해내는 일군, 아무런 일감이 없어도 조진기 어려우며 충직하고 진실하게 사소한 편지도 없이 완전무결하게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 일군, 우리는 그를 빨리 만나보고 싶었다.』
 『하루해가 거의 저물어서야 우리는 작업부처팀의 그와 마주앉을 수 있었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강행군 길을 이어나서는 우리 장군님께 만족을 드러내면 아직 멀었다고 하면서 취해를 사양하던 선군시대 공로자인 그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우리 장군님의 기억속에 있는 선군시대 본보기단위가 되고 싶었습니다.』
 『본사직자 조향선

《조선팀의 정신적승리》, 《세계적인 축구신화를 창조》

우리 나라 팀의 월드컵경기대회 첫 경기가 세상을 놀래웠다

우리의 미더운 남자축구선수들이 남아프리카에서 진행된 국제축구연맹 2010년 월드컵경기대회 첫 경기에서 세계적인 파문을 일으켰다.』
 『우리 나라 팀은 월드컵경기대회 본선경기에 예정처럼 진출한 때로부터 전세계에 1966년의 《천리마축구신화》가 또다시 창조되리라는 커다란 기대와 확신을 안겨주었으며 수많은 축구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관심을 모으는 최대의 화제거리로, 언론계의 초점도 되었다.』
 『경기대회 개막이후 우리 나라 팀이 우상후보로써 지목되고 있는 브라질팀과 대전하게 될 첫 경기는 시작전부터 각이한 추측과 예상을 낳았다.』
 『중국의 신화통신과 중앙TV 방송, 미국의 AP통신을 비롯한 세계언론들은 첫 경기준비에 박차를 가하고있는 우리 선수들의 모습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고 조국인민들의 기대에 보답하려는 그들의 정신세계를 상세히 소개하면서 신비스러운 조선팀의 장점은 곧 예측불가능성이라고 전하였다.』
 『한편 브라질팀은 조선팀과의 경기에서 《완벽한 대응》을 거를 자신심을 표명하였으며 수많은 의진들과 축구전문가들은 브라질팀이 가장 많은 골을 넣는 경기를 이룬 대회에 기록하고 세계최강팀의 존경을 다시 한번 표시할것이라고 주장하

고 보도하였다.』
 『영국의 로이터통신과 BBC 방송은 브라질팀이 《천리마》 팀을 상대로 놀라운 정도의 어려운 경기를 치르도록 대우할 것이라고 그렇게 흥분하고 완강하게 경기를 할것은 예견 못했다고 하면서 조선팀은 5차례의 월드컵 우승팀을 상대로 득점함으로써 정신적승리를 이룩하였다고 격찬하였다.』
 『국제축구연맹,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체육신문들인 《레피》와 《스포츠》, 마르세 엠메이통신, 오스트리아 APA통신, 헬남신문 《팬디언년》 등도 조선팀이 경기대회 시작부터 가장 불만 경기를 펼치며 불굴의 정신력으로 놀라운 정도의 성과를 달성하고 세계에 무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과시한 대회에 널리 소개시켰다.』
 『우리 선수들의 고상한 정신 도덕적품도도 세계의 관심을 모았다.』
 『《애국가》가 주악될 때 조선 선수들의 표정과 눈빛을 살펴보았더라면 그들의 진정한 자부심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넘어지던 우정 연합을 부리며 땀과 피를 따내려도 하지 않는 조선 선수들의 고상한 경기도덕품에 탄복》 등의 찬사들이 언론들을 통해 세계 각지에 전파되었다.』
 『수많은 신문과 통신, 방송이 조선 선수들의 품모를 극구 찬양하고있는 가운데 중국의 리량망

다크 보도하였다.』
 『우리 선수들의 정신력에 대한 찬사는 이악하게 공을 빼앗고 퍼뜨리는 데리도 끝까지 달리는 강한 의지와 노골적 공격방어와 신속하고 자신있는 돌파력을 과시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경기 가 끝난 후 정말 이긴것은 조선 선수들이라고 인정하였다고 한 중국의 《베이징일보》에도 반영되었다.』
 『중국의 인터넷홈페이지 심방망은 10여건의 기사를 연일 집중편집하면서 우리 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조선 선수들이 45분동안 조선 선수들이 달린 총거리는 5만 2936미터로 브라질선수들에 비해 1인당 평균 1000여나 더 길었다.』
 『그들은 세계적인 축구신화를 창조하였다.』
 『조선팀이 브라질팀물론에 한 골을 넣은것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기적이다. 조선팀의 승리야말로 조선 선수들의 힘을 깨우쳐주었음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 조선에 박수갈채를 보내게 하였다.』
 『그들의 정신력은 모든 팀들이 따라배워야 할 모든 것이다.』
 『조선팀이 우뚝 솟아오른것은 실로 위대한 것이며 이로 하여 이번 월드컵경기대회도 더욱 빛나는것으로 되게 되었다.』
 『후날 축구애호가들의 기억속에는 세계 유명 선수들의 회한한 기교가 아니라 조선의 장인인민화적인 사회주의 정신이

들어장철공장은 생산이 잘되는 단위이다. 이 공장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지난해에 10여년간의 최고생산실적을 기록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현시대에 과학기술이 자 생산이고 생산이자 과학기술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공장에서는 지금 자체로 만든 중주파유도로를 리용하여 절강제생산을 늘이고있다. 이 유도로는 완전히 우리 식의 중주파유도로이다.』
 『몇해전 중주파유도로를 만들 때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 공장의 생산현은 세련되지 않았다. 강성대국건설로 들끓는 도안의 전투장에서는 철강에 대한 수요가 날로 늘어나는데 당시 공장에서 사용하던 유도로는 생산성이 그리 높지 못했었다. 때문에 생산의 긴장성을 풀기 위한 여러가지 안이 제기되었는데 그중의 하나는 이미 있는 유도로를 개조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대당하게 중주파유도로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공장장조직에서는 중주파유

도로제작안을 적극 지지하였다. 《대개지만 하여도 중주파 유도로는 자체로 만든 단위가 없었고 또 공장의 기술력향상도 충분하지 못하였다.』
 『그런 조건에서 왜 굳이 어려운 과학기술적문제 해결을 전제로 하는 중주파유도로를 만들려고 하는가고 머리를 기웃거리 는 일군들도 없지 않았다.』
 『공장장조직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우선 일군들에게 신심을 안겨주기 위한 사업부터 시작하였다.』
 『원준유도로의 개조는 생산장성의 근본방도로는 될 수 없다.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생산공정을 끊임없이 현대화하여야만 최물을 마음먹은대로 뽑을 수 있다. 이것은 당의 과학중시사상이 가르쳐주는 진리이다.』
 『이런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일군들을 불러일으킨 초급당비서 백선만동무는 지배언어와 토의하여 일군들이 여러 단위를 찾아 중주파유도수에 대한 견해를 넓히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한편 국가과학

기술을 중시한 보람 해 주 강 철 공장 일 군 들 이러한 짧은 기간에 만들어내게 되었다.』
 『자체의 힘으로 새 유도로를 만들어낸 기쁨은 비결에 달렸다. 하지만 공장일군들은 첫 성과에 만족하지 않았다. 새 유도로의 운영과정에 제기되는 복잡한 기술적문제들을 우리 식으로 해결할 때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이들은 철생산단위의 지휘성원들이 경의 의지로 생산을 밀고나가면서 로동자, 기술자들과 함께 무궁무진한 탐구와 실천의 낮과 밤을 이어 드디어 몇달만에 중주파유도로를 완전히 우리 식으로 완성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유도로를 리용하여 교대당 최고수준의 용해작업을 하는 성과가 이룩되었다.』
 『이것 공업일군들은 현재 컴퓨터에 의한 용해공정 자동화공정의 수조조공정제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일군들은 공장의 현대화를 위하여 《4.15기술혁신동력》 령을 늘이고 거기에 CNC 기술연구집단, 연구성과도입집

독자의 필지

내 나라는 화목한 대가정입니다

저에게는 우리 인민반사들만 누구나 부러워하는 《딸》이 있습니다. 그는 라진수출품 검사검역소 라진본소에서 일하고있는 김경성동무입니다.』
 『제가 그를 알게 된 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예로운 인민의 전열이 되었다고 저의 집에 들어선 그날부터 오늘까지 언제나 변신없이 저와 그의 가정에서 한 가정의 주부로서 해야 할 일도 많고 돌아와서 할 일도 많지만 그는 언제나와 같이 한결같은 제가 간기어라도 권모세라, 생활에 사소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천천천천 정을 기울이고있습니다.』
 『하루이름도 아닌 수년세월 말처럼 쉽지 않은 길을 스스로 걷고있는 그를 대할 때마다 눈시울이 젖어들곤 합니다.』
 『항상 저를 천이처럼 떠 마』
 『목표로써 37년』
 『개천타꿈기공공장 강강직장 박용호동무는 37년 한초소에서 신장하게 일해오고있다.』
 『성실 기간 그는 주강, 주물체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면서 작업원들과 힘을 합쳐 현대적 작업원안에 맡겨진 책임제계획을 제정하여 수행하였다.』
 『주물공으로 수년생을 일해 오는 나날에 그는 한건의 국가발명과 수실건의 새 기술혁신과 창고고안을 성공시켰으

음에 두고 알지못하게 그가 바친 지극한 지성을 어떻게 한두 마디 글로 다 할 수 있었습니까.』
 『국가적명절이나 기념일에는 물론 깊은 밤, 이른새벽 때없이 저의 집 문을 두드려 갑자기 영안식품들도 안겨주며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준 김경성동무,』
 『그 시기에 받들려 저는 70을 바라보는 오늘에도 병사시절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혁명의 뜻을 계속 피워가고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 영예군인, 전쟁보병들을 성실성으로 돌봐주고있는 김경성동무는 희천발전소건설에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가고있습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을 천여버리로 모시고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사회주의 내 조국이 세상이며 제일입니다.』
 『라선시 안화동 46인민반 박용호 김경도』
 『단 등을 꾸려놓았으며 한쪽으로는 기술력량을 계속 키우는 사업을 동시에 벌이고있다.』
 『도시방전설계관리국 당조직에서 이들의 사업을 힘껏 떠밀어주었다.』
 『지배인 김경성동무는 시간을 최대한 아껴 부지런히 지식을 쌓으면서 생산뿐만 아니라 로력공간을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경영활동에서의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도 실리가 나게 짜고 들었고있다. 하여 공장이 인민생활향상에도 적극 기여할 수 있게 하고있다.』
 『올해에 공장에서 생산을 다그치면서 많은 생활필수품들을 만들어내며 보배로운 보배로써 해당 단위 일군들과 인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있다. 이것은 과학기술을 중시한 이 공장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었다.』
 『이 공업일군들은 더 큰 로력적성과를 안고 10월의 대추적정에 몇몇가지 돌출적 업적에 힘입어 늘어난다는 도안의 철강제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차게 벌어나가고있다.』
 『특약기자 리승철

로씨야 이고리 모이세예브명칭 국립야카데미아연구소용단 해방탑에 화환 진정

【평양 6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엘레나 세르바코바지배인을 단정오 하는 로씨야 이고리 모이세예브명칭 국

립야카데미아연구소용단인 화환을 해방탑에 진정하고 조련권력자들을 추모하여 목상하였다.』
 『그들은 해방탑을 돌아보았다.』

립야카데미아연구소용단인 화환을 해방탑에 진정하고 조련권력자들을 추모하여 목상하였다.』
 『그들은 해방탑을 돌아보았다.』



시랑상발표모임을 통하여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하는 능력있는 인재들로 준비해갈 리 진 명 적음

해주강철공장은 생산이 잘되는 단위이다. 이 공장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지난해에 10여년간의 최고생산실적을 기록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현시대에 과학기술이 자 생산이고 생산이자 과학기술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공장에서는 지금 자체로 만든 중주파유도로를 리용하여 절강제생산을 늘이고있다. 이 유도로는 완전히 우리 식의 중주파유도로이다.』
 『몇해전 중주파유도로를 만들 때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 공장의 생산현은 세련되지 않았다. 강성대국건설로 들끓는 도안의 전투장에서는 철강에 대한 수요가 날로 늘어나는데 당시 공장에서 사용하던 유도로는 생산성이 그리 높지 못했었다. 때문에 생산의 긴장성을 풀기 위한 여러가지 안이 제기되었는데 그중의 하나는 이미 있는 유도로를 개조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대당하게 중주파유도로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공장장조직에서는 중주파유

과학기술을 중시한 보람

해 주 강 철 공장 일 군 들 이러한 짧은 기간에 만들어내게 되었다.』
 『자체의 힘으로 새 유도로를 만들어낸 기쁨은 비결에 달렸다. 하지만 공장일군들은 첫 성과에 만족하지 않았다. 새 유도로의 운영과정에 제기되는 복잡한 기술적문제들을 우리 식으로 해결할 때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이들은 철생산단위의 지휘성원들이 경의 의지로 생산을 밀고나가면서 로동자, 기술자들과 함께 무궁무진한 탐구와 실천의 낮과 밤을 이어 드디어 몇달만에 중주파유도로를 완전히 우리 식으로 완성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유도로를 리용하여 교대당 최고수준의 용해작업을 하는 성과가 이룩되었다.』
 『이것 공업일군들은 현재 컴퓨터에 의한 용해공정 자동화공정의 수조조공정제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일군들은 공장의 현대화를 위하여 《4.15기술혁신동력》 령을 늘이고 거기에 CNC 기술연구집단, 연구성과도입집

도로제작안을 적극 지지하였다. 《대개지만 하여도 중주파 유도로는 자체로 만든 단위가 없었고 또 공장의 기술력향상도 충분하지 못하였다.』
 『그런 조건에서 왜 굳이 어려운 과학기술적문제 해결을 전제로 하는 중주파유도로를 만들려고 하는가고 머리를 기웃거리 는 일군들도 없지 않았다.』
 『공장장조직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우선 일군들에게 신심을 안겨주기 위한 사업부터 시작하였다.』
 『원준유도로의 개조는 생산장성의 근본방도로는 될 수 없다.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생산공정을 끊임없이 현대화하여야만 최물을 마음먹은대로 뽑을 수 있다. 이것은 당의 과학중시사상이 가르쳐주는 진리이다.』
 『이런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일군들을 불러일으킨 초급당비서 백선만동무는 지배언어와 토의하여 일군들이 여러 단위를 찾아 중주파유도수에 대한 견해를 넓히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한편 국가과학

기술을 중시한 보람 해 주 강 철 공장 일 군 들 이러한 짧은 기간에 만들어내게 되었다.』
 『자체의 힘으로 새 유도로를 만들어낸 기쁨은 비결에 달렸다. 하지만 공장일군들은 첫 성과에 만족하지 않았다. 새 유도로의 운영과정에 제기되는 복잡한 기술적문제들을 우리 식으로 해결할 때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이들은 철생산단위의 지휘성원들이 경의 의지로 생산을 밀고나가면서 로동자, 기술자들과 함께 무궁무진한 탐구와 실천의 낮과 밤을 이어 드디어 몇달만에 중주파유도로를 완전히 우리 식으로 완성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유도로를 리용하여 교대당 최고수준의 용해작업을 하는 성과가 이룩되었다.』
 『이것 공업일군들은 현재 컴퓨터에 의한 용해공정 자동화공정의 수조조공정제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일군들은 공장의 현대화를 위하여 《4.15기술혁신동력》 령을 늘이고 거기에 CNC 기술연구집단, 연구성과도입집

단 등을 꾸려놓았으며 한쪽으로는 기술력량을 계속 키우는 사업을 동시에 벌이고있다.』
 『도시방전설계관리국 당조직에서 이들의 사업을 힘껏 떠밀어주었다.』
 『지배인 김경성동무는 시간을 최대한 아껴 부지런히 지식을 쌓으면서 생산뿐만 아니라 로력공간을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경영활동에서의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도 실리가 나게 짜고 들었고있다. 하여 공장이 인민생활향상에도 적극 기여할 수 있게 하고있다.』
 『올해에 공장에서 생산을 다그치면서 많은 생활필수품들을 만들어내며 보배로운 보배로써 해당 단위 일군들과 인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있다. 이것은 과학기술을 중시한 이 공장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었다.』
 『이 공업일군들은 더 큰 로력적성과를 안고 10월의 대추적정에 몇몇가지 돌출적 업적에 힘입어 늘어난다는 도안의 철강제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차게 벌어나가고있다.』
 『특약기자 리승철

모락사건의 진상을 똑바로 꿰뚫어보아야 한다

최근 남조선피괴들은 국방위원회 결연단을 현지에 파견할때 대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저들이 일방적으로 짜맞춘 《천안》호침몰사건 《조사결과》라는것을 팔팔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주재 우리 나라 대표는 공화국을 대변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성원국들앞에서 《천안》호 사건 《조사결과》의 부당성을 까뻐한 데 이어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이미 언급된바와 같이 《천안》호 사건 《조사결과》라는것은 철두철미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날조극으로서 발원된 순간부터 대내외적으로 의혹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있다. 시간이 갈수록 그 조작자들이 불순한 목적을 노리고 꾸민 모략극이라는것이 여러가지 자료와 객관적증거를 통하여 여의없이 드러나고있다.

미국과 남조선이 이번 《사건조사》를 두고 《다국적조사단》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했더니 뭐니 하고 떠들고있는것부터가 모락군들의 서문 솜씨를 보여준다. 《조사단》 자체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할수 없게 구성되었거니와 《조사단》의 활동내막자체 또한 문제투성이이다. 왜대외적전문가들이 어떤 절차와 공정을 거쳐 선정되었는지, 정부대표단인지 개인 자격인지, 실제 조사현장을 가지고 참가했는지 이뿐만 아니라, 조사결과에 대해 홍보해줄때 대한 공식적의견을 받고조사자 합자부인이며 어떤 나라의 《조사결과》발표를 앞두고 자기 전문가들을 파견한다고 공개하였으나 그들이 언제 남조선에 도착했는지, 실제 조사에 참가했는지 도라하지 않는다. 어떤 나라는 자국 전문가들이

《조사단》에 참가하여 기술적방조만 하고 글을 쓰고있다. 상대측에 대한 편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천안》호침몰사건이 서문 모략극이라는것은 그 조작자들이 제시한 《물증》이라는것들이 이번 사건을 우리와 결부시키는데 유리한것만 추려서 내놓고 불리한것은 《군사기밀》이라는 미명하에 모두 은폐한데서도 드러난다. 제시된 《물증》이라는것들마저 의혹이 너무 많이 제기되어 미국과 남조선에서는 물론 전세계적인 《수수께끼》로 되고있다.

남조선피괴들은 《천안》호가 《북조선의 어뢰공격》으로 침몰되었다는 《조사결과》으로 길이 1.5m의 어뢰부부분동체라는것을 내놓았다. 그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해 미리 대가시엔 촬영가들이 민간어선인 투망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추진체를 포장하여 직송기로 이동하는 과정을 찍은 사진을 공개하였다.

국소형판까지 찾아내는 침탄물기수단을 장비한 미국과 남조선의 수십척의 함정들이 달려들어 50일이 지나도록 찾아내지 못한 어뢰추진체를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한강안간어선이 갑자기 고기그물로 견져왔다는것은 이소프의 우화에서나 볼수 있는 희극이 아닐수 없다. 《천안》호를 순식간에 두동강했다는 어뢰의 추진축, 스크류, 발동기 등이 휘어져서나 손상된것이 전혀 없는것이 또한 사람들의 의혹을 자아내었다.

어뢰에 의해 배가 두동강났다면 함선인의 조영들이 형체도 없이 아 하겠음에도 불구하고 《천안》호침몰당에 시 열한형광등이 발견된것은 남조선에서 커다란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화제거리로 되고있다.

《가장 뚜렷한 물증》이라고 하는 어뢰추진체의 뒤부분에 《북의 글씨체》로 찍혀있는 《1번》이라는 글도 의문부호를 던지게 하고있다.

북과 남은 모두 동일한 조선어로 달하고 글을 쓰고있다. 상대측에 대한 은밀한 타격을 계획할 때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것은 초보적인 상식이니라 나중에는 《기밀유지시약서》를 추진체에 파란색마지크로 쓴 《1번》이라는 손글씨가 금방 쓴것처럼 보였을수 없거나 어뢰발사시 발생하는 고열로 하여 마지크로 쓴 글이 남아있을수 없다는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천안》호침몰당시로 말하면 이 수역에서는 미국과 남조선의 대규모 《독수리》함동군사연습이 최절정에 이르고있었다. 대함 및 대잠정전과 대공사격, 해상자단작전 등에 동원된 미국과 남조선의 각종 함정집단과 수중, 공중정찰수단들이 혼잡을 이루고있는 곳에서 우리 잠정정이 여러 군함들중 바로 조계함이라고 하는 《천안》호를 목표로 정했다는것도 말이 안되거나 최첨단설비로 장비되었다고 하는 미국과 남조선함정들이 우리 잠정정의 침투를 탐지하지 못했다는것도 역시 상식밖의 일이다.

부지거수의 의문점들과 반증자료들과는 반대로 미국과 남조선피괴들은 우리의 편파를 부당할수 있는 증거들을 흑막으로 감추거나 조사대상에서 철저히 배제하였다.

이번 함선침몰사건의 핵심증거인 가스라빈을 그 단적인 실례로 들 수 있다. 남조선은 사건발생초기부터 가스라빈이 함선침몰수역에 있다는것을 변히 알고있으면서도 《흑막》에 의해 배가 두동강났다면 함선인의 조영들이 형체도 없이 아 하겠음에도 불구하고 《천안》호침몰당에 시 열한형광등이 발견된것은 남조선에서 커다란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화제거리로 되고있다.

《가장 뚜렷한 물증》이라고 하는 어뢰추진체의 뒤부분에 《북의 글씨체》로 찍혀있는 《1번》이라는 글도 의문부호를 던지게 하고있다.

《천안》호침몰당시로 말하면 이 수역에서는 미국과 남조선의 대규모 《독수리》함동군사연습이 최절정에 이르고있었다. 대함 및 대잠정전과 대공사격, 해상자단작전 등에 동원된 미국과 남조선의 각종 함정집단과 수중, 공중정찰수단들이 혼잡을 이루고있는 곳에서 우리 잠정정이 여러 군함들중 바로 조계함이라고 하는 《천안》호를 목표로 정했다는것도 말이 안되거나 최첨단설비로 장비되었다고 하는 미국과 남조선함정들이 우리 잠정정의 침투를 탐지하지 못했다는것도 역시 상식밖의 일이다.

부지거수의 의문점들과 반증자료들과는 반대로 미국과 남조선피괴들은 우리의 편파를 부당할수 있는 증거들을 흑막으로 감추거나 조사대상에서 철저히 배제하였다.

이번 함선침몰사건의 핵심증거인 가스라빈을 그 단적인 실례로 들 수 있다. 남조선은 사건발생초기부터 가스라빈이 함선침몰수역에 있다는것을 변히 알고있으면서도 《흑막》에 의해 배가 두동강났다면 함선인의 조영들이 형체도 없이 아 하겠음에도 불구하고 《천안》호침몰당에 시 열한형광등이 발견된것은 남조선에서 커다란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화제거리로 되고있다.

《가장 뚜렷한 물증》이라고 하는 어뢰추진체의 뒤부분에 《북의 글씨체》로 찍혀있는 《1번》이라는 글도 의문부호를 던지게 하고있다.

《천안》호침몰당시로 말하면 이 수역에서는 미국과 남조선의 대규모 《독수리》함동군사연습이 최절정에 이르고있었다. 대함 및 대잠정전과 대공사격, 해상자단작전 등에 동원된 미국과 남조선의 각종 함정집단과 수중, 공중정찰수단들이 혼잡을 이루고있는 곳에서 우리 잠정정이 여러 군함들중 바로 조계함이라고 하는 《천안》호를 목표로 정했다는것도 말이 안되거나 최첨단설비로 장비되었다고 하는 미국과 남조선함정들이 우리 잠정정의 침투를 탐지하지 못했다는것도 역시 상식밖의 일이다.

부지거수의 의문점들과 반증자료들과는 반대로 미국과 남조선피괴들은 우리의 편파를 부당할수 있는 증거들을 흑막으로 감추거나 조사대상에서 철저히 배제하였다.

이번 함선침몰사건의 핵심증거인 가스라빈을 그 단적인 실례로 들 수 있다. 남조선은 사건발생초기부터 가스라빈이 함선침몰수역에 있다는것을 변히 알고있으면서도 《흑막》에 의해 배가 두동강났다면 함선인의 조영들이 형체도 없이 아 하겠음에도 불구하고 《천안》호침몰당에 시 열한형광등이 발견된것은 남조선에서 커다란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화제거리로 되고있다.

《가장 뚜렷한 물증》이라고 하는 어뢰추진체의 뒤부분에 《북의 글씨체》로 찍혀있는 《1번》이라는 글도 의문부호를 던지게 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학업 시작하신 46돐에 즈음하여 핀란드, 만민사들이 담화를 발표하였다.

핀란드 코민포름통보사 사장 헤이키 세벨레는 9일 담화에서 근 반세기만에 걸친 김정일동지의 당명도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력사에서 가장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이 나라 김정일동지께서는 전체 인민의 존경과 신뢰, 호모를 받아오시었다고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속에 인민을 위해 불분류의 로고를 바치시며 끝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걸고계신다.

1994년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인 김정일동지께서는 뜻밖에서 서거하신 후 조선의 운명과 미래를 한몸에 안으신 이시기에 가장 중요하게 사후의 추모사업으로서 사회주의 창시자인 주체사상을 기초한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드시었다.

선군정치는 세계정치에서 가장 독창적으로 성공적인 정치방식으로 사회주의가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는 지도사상으로 되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시면서 탁월한 정치실력과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로서의 품모를 남김없이 보여주시었다.

그이는 조선로동당을 백전백승의 혁명정당으로 강화발전시킨 위대한 정치철학자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근대가 사회주의건설의 주력군, 조국과 민족의 수호자로서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쌓으신 업적과 사학업에서 사학업으로 하여 전제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을 받고계신다.

우리는 나라의 발전과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투쟁에 변함없는 지지와 연대를 보여준다.

남매경제주권유연회사 부사장 우란 룬은 13일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의 전투력을 높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전진을 일으키자》,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 =) 의 전통을 세우며 주체형의 혁명정당이다》, 《사회주의혁명의 역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모를 비롯 한 고전적로작을 발표하시어 혁명당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당의 령도적 역할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당사업체제와 방법을 개선하며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선로동당의 혁명적원칙과 확고한 방침을 밝혀주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로서의 품모를 남김없이 보여주시었다.

그이는 조선로동당을 백전백승의 혁명정당으로 강화발전시킨 위대한 정치철학자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근대가 사회주의건설의 주력군, 조국과 민족의 수호자로서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쌓으신 업적과 사학업에서 사학업으로 하여 전제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을 받고계신다.

우리는 나라의 발전과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투쟁에 변함없는 지지와 연대를 보여준다.

남매경제주권유연회사 부사장 우란 룬은 13일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의 전투력을 높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전진을 일으키자》,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 =) 의 전통을 세우며 주체형의 혁명정당이다》, 《사회주의혁명의 역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모를 비롯 한 고전적로작을 발표하시어 혁명당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당의 령도적 역할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당사업체제와 방법을 개선하며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선로동당의 혁명적원칙과 확고한 방침을 밝혀주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의 전투력을 높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전진을 일으키자》,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 =) 의 전통을 세우며 주체형의 혁명정당이다》, 《사회주의혁명의 역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모를 비롯 한 고전적로작을 발표하시어 혁명당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당의 령도적 역할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당사업체제와 방법을 개선하며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선로동당의 혁명적원칙과 확고한 방침을 밝혀주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로서의 품모를 남김없이 보여주시었다.

그이는 조선로동당을 백전백승의 혁명정당으로 강화발전시킨 위대한 정치철학자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근대가 사회주의건설의 주력군, 조국과 민족의 수호자로서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쌓으신 업적과 사학업에서 사학업으로 하여 전제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을 받고계신다.

우리는 나라의 발전과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투쟁에 변함없는 지지와 연대를 보여준다.

남매경제주권유연회사 부사장 우란 룬은 13일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의 전투력을 높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전진을 일으키자》,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 =) 의 전통을 세우며 주체형의 혁명정당이다》, 《사회주의혁명의 역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모를 비롯 한 고전적로작을 발표하시어 혁명당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당의 령도적 역할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당사업체제와 방법을 개선하며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선로동당의 혁명적원칙과 확고한 방침을 밝혀주시었다.

유럽 지역 주체사상토론회 진행

1번에서 계속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 오카미 쟁이씨는 주체사상은 유럽과 전세계를 자주화하는 데서 지도적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주체사상은 자기 나라뿐 아니라 세계자주화실현의 기치로 된다.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은 세계인민들의 모범으로 되고있다.

조선인민은 주체사상의 기치 밑에 사회주의건설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고있으며 미래제국주의와 견결히 투쟁하고있다.

조선인민이 거두고있는 승리의 근본요인은 선군정치에 있다.

전세계 주체사상신봉자들이 자기 나라의 자주화와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주체사상연구보급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

주체사상에 대한 연구를 심도있게 하고 그 정당성과 생활력을 점검하고 세시대의 지도적원칙으로 굳게 확신하는것이 중요하다.

나는 유럽지역의 주체사상신봉자들이 주체사상을 보다 광범히 연구보급하며 지역의 자주화와 평화를 이룩하는데 커

다한 기여를 하리라고 확신한다.

이어 《주체의 기치밑에 자주와 평화의 세계를 건설하자!》, 《자주성과 21세기의 평화》, 《세계화》를 반대하는 강력한 공동전선을 형성하자!》, 《세계화》에 대항한 민족적자주성의 견지》, 《주체를 세우는것은 지배주의와 세계화》 책등을 짓부시기 위한 근방도》 등의 제목으로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리더십을 맡고있는 주체사상연구소소장 책임자 류드밀 코스타디노브, 주체사상연구회 핀란드전국위원회 위원장 조지키예시, 우크라이나 《선군의 보검》 주체사상연구회 위원장 니콜라이 볼리슈코와 이말리 에르모주체사상, 선군사상연구소소장 책임자 홀라비오 페리니를 비롯한 여러 인사들이 토론하였다.

토론회자들은 김정일주석은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어 자주위업수행의 지도적지침을 마련해주시고 탁월한 령도조 선혁명을 승리적으로 이끄시어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의 참다운 모범을 창조하시였으며 세계자주화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신 위대한 정치가이시라고 높이 칭송하였다.

그들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실현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다. 역사와 현실은 김정일각하께서 펼치시는 선군정치가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동하고 제국주의와의 정지, 군사적대결에서의 승리나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해나갈수 있다. 하는 유일한 정치방식이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세계화》 책등을 분쇄하고 자주적이며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중요하것은 주체사상이 구원된 조선의 사회주의현실을 따라버려 자주성과 독자성, 민족성을 고수하는것이요 하면서 그들은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전진적인 지지와 연대를 표시하였다.

그들은 토론을 마치면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만세!》, 《조선로동당 만세!》, 《주체사상 만세!》, 《선군혁명 령도 만세!》를 소리로 높이 외치면서 토론회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참가자끼리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었다.

유엔주재 우리 나라 상임대표의 편지와 의무성 대변인 대답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공식문건으로 배포

최근 조선반도에 조성되고있는 엄청난 사태발달과 관련하여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가 유엔안전보

유엔주재 우리 나라 상임대표의 편지와 의무성 대변인 대답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공식문건으로 배포

최근 조선반도에 조성되고있는 엄청난 사태발달과 관련하여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가 유엔안전보

오늘의 세계

최근 중국과 미국사이의 마찰이 표면화되어 여론의 주목을 끌고있다. 지난 10일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자기 나라의 군사정책을 비난한 미국의 처사를 배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중국은 평화발전의 길을 확고부동하게 걸고있다. 우리는 방위적인 국방정책을 실시하고있으며 중국의 국방력의 유지와 발전은 다만 중국의 국가주권과 권호를 수호하기 위해서이다. 중국의 발전은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사람에게도 위협으로 되지 않는다. 우리는 남을 위협하지 않으며 남을 침략하지도 않는다.》

중국은 배변주의를 반대한다. 중국은 앞으로 도 평화발전의 길을 확고히 걸을것이며 영원히 배변을 추구하지 않을것이다. 이것은 중국정부 자체에 한 정중립 선언이다. 《국방력강화는 매개 나라들의 자주적권리이다. 중국이 자기

나라의 국방정책에 대한 미국의 시비질을 반박한다는 담언한다. 중미사이의 관계에 복잡성을 조성하고있는 책임은 미국에 있다. 그러나 미국은 그 책임을 중국에 넘겨주려 하고있다. 얼마전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국제회의에서 미국방장관 케이스는 불이 붙어 중국을 방망 했었다는 자기의 요청을 중국이 거부한데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한 중국은 반격을 가하였다.

미국은 중미3개공동통신망에 대한 자기의 의무를 리행하지 않고있으며 중국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계속하고있다. 그리하여 중미 두 나라사이의 관계는 악순환을 거듭하고있다.

중국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은 중미국사관계발전의 길에 주요 장애물이 가탈하였다고 하면서 서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와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과 영공에 대한 미해군함선들과 비행기들의 빈번한 정찰행위 그리고 쌍부군사교류에 대한 미국의 법률적제한조치들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중미국사관계의 장벽은 중국에 의해 구축된것이 아니라,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와 《전혀 세로없이 아니》라는 케이스의 해석은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그의 리해부족을 드러내었다. 이것은 일반적문제에 아니라 지난 30년동안 중미관계에 부정적영향을 준 심각한 문제이라고 지적하였다.

중미사이의 판계를 놓고 미국 의 한 중국문제전문가는 《미국과 중국: 1972년에래 위약한 판계》라는 제목의 책에서 중미판계를 《비우호적인 판계》로 평하였다.

중미사이의 마찰은 군사분야뿐 아니라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되고있다.

지난 10일 미재무장관은 미국회 상원회의에서 중국의 환율개혁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중국인민폐의 평가인상을 촉구하였다.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요구를 자국에 대한 내정간섭과 리익침해로 간주하며 반발해나서고 있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인민해방군문제에 정지화하고 중국 수질로 중미관계는 대호 호호부족의를 실시하는데는 큰데에 맞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자기 자신도 헤쳐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중국은 인민해방군문제에 대한 자기의 립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대만문제와 군사, 경제 등 일련의 문제들을 둘러싼 중미마찰은 쌍방간의 이해관계를 리해관계의 모순에 기인한다.

외신들은 앞으로 미국이 자기의 리기적목적으로부터 중국의 내정에 계속 간섭하여나선다면 중미사이의 대립과 마찰은 더욱 심화될것이라고 견고하였다.

미국의 음모책동을 단죄

이만국회 의장 알리 라리자가 13일 국회에서 연설하면서 미국의 음모책동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최근 미국이 유엔안보리사회를 내세워 이란에 새로운 제재를 가하기로 한데 대해 언급하면서 그는 그것으로 하여 미국의 기만성이 세계에 또다시 드러났다고 까뻐하였다.

그는 이란인민은 미국과 지방의 책동을 철저히 저지시킬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산림 조성

중국 중경에서 생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산림조성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지난 한해동안에만도 시에서는 9억 1000만루의 나무를 심고 798만루의 면적을 확보하였다.

이에 따라 시의 산림면적률은 35%이상으로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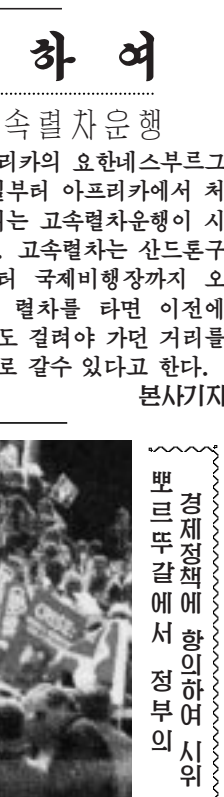
물과 인신

유림동맹 성원국들이 물가가 계속 올라 주민들이 생활난을 겪고있다.

유림동맹 통계국은 16일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올해 5월에 유림을 사용하는 동맹성원국들이 물가가 지난해말에 비해 1.6% 인상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운수수단료는 5.5% 비싸졌다 한다.

고속철차운행

남아프리카의 요한네스부르크에서 8일부터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되는 고속철차운행이 시작되었다. 고속철차는 산드루구역으로부터 국제비행장까지 90분만에 달려가 2011-2012년 15분대로 갈수 있다고 한다.



《보팔참사》장본인의 철면피한 처사

《보팔참사》는 지금까지 26년전에 발생하였다. 1984년 12월 3일 새벽 미국 의 다국적회사인 유니온 카비드 회사가 세운 공장에서 유독성 가스 누출이 일어났다. 유독성 가스가 누출되어 3000여건의 문서를 검토하였다.

《보팔참사》는 지금까지 26년전에 발생하였다. 1984년 12월 3일 새벽 미국 의 다국적회사인 유니온 카비드 회사가 세운 공장에서 유독성 가스 누출이 일어났다. 유독성 가스가 누출되어 3000여건의 문서를 검토하였다.

세계를 놀래운 《보팔참사》는 돈벌이에 환장한 미국독점체의 무책임한 처사에 의하여 비롯된 것이었다.

유니온 카비드회사는 인디아의 보팔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있는 주민지역에 공장을 세웠다. 유독성가스로부터 발생하는 유독성 가스가 누출되어 1994년 인디아에서 주재국에 팔아버렸다. 그리고는 인디아법정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지자 그 무슨 성명표시들을 붙여버렸다. 회사측은 성명에서 이나 류산한 딸의 치료비만 받는 《보상금》으로 몇백만 더 받는다. 《고》 하면서 미국회사를 저주하였다.

유니온 카비드회사는 대규모 사고에 대한 《보상금》으로 몇천의 돈을 던져주고는 인디아의 법정출두요구를 계속 거부하였다.

20세기의 가장 무서운 《보팔참사》를 잊어선 장본인 미국회사는 사건적 책임을 부정부패하고있다. 6년전엔 팔에서 유독성가스로부터 발생한 20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한 나라 신문은 해당 미국회사가 《보팔참사》의 책임을 질것을 하였다. 그러나 이 글이

나가지마자 미국회사는 《그것은 거짓이다.》고 하면서 책임을 부정부패하고 있다. 그것은 사고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들에게 대한 보상은 물론 유독성물질처리 등으로 회사가 마땅한 손해를 보게 될것이라고 타산하였기때문이다. 2004년 미국은 유니온 카비드회사 사건을 인디아법정에 넘겨달라는 데 이런 위험한 공방이 도사되었는가. 어떤 원인으로 안전장치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는가. 라는 물음을 던지었다. 공장근처에서 만성기침에 시달리며 딸과 함께 살고있는 한 젊은 여성은 《호흡곤란과 3년이나 류산한 딸의 치료비만 받는 《보상금》으로 몇백만 더 받는다. 《고》 하면서 미국회사를 저주하였다.

유니온 카비드회사는 대규모 사고에 대한 《보상금》으로 몇천의 돈을 던져주고는 인디아의 법정출두요구를 계속 거부하였다.

20세기의 가장 무서운 《보팔참사》를 잊어선 장본인 미국회사는 사건적 책임을 부정부패하고있다. 6년전엔 팔에서 유독성가스로부터 발생한 20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한 나라 신문은 해당 미국회사가 《보팔참사》의 책임을 질것을 하였다. 그러나 이 글이